

古文獻을 통해 본 服飾과
衣服材料 生産의 發展 過程에 關한 研究
—古代~朝鮮時代를 中心으로—

A study on the developmental process of clothing style and the manufacture
of clothing material through the works of ancient writing.

성신여자대학교 가정대학 의류학과
강 사 심 화 진

Dept of clothing Sung Shin Univ.

Lectures : Shim, Hwa Jin

(목 차)

- I. 序論
- II. 研究 方法 및 範圍
- III. 文獻에 나타난 服飾과 衣服材料 生産의 發展過程
- IV. 結論
- 參考文獻

<Abstract>

The Korean clothing industry, according to historical documents, has a long and deep history. We can deduce the fact that cloth in material was self reliant during the pre-historic period. Although we can not find evidence of clothing material trade, from the Three Kingdom era we find active trade with Kang, Jin of China and Japan followed by the spread of Korean clothing material manufacturing skills to Japan.

Meanwhile, the actual progress of the clothing industry came with the manufacture of cotton stuff in the Koryo era and the official and unofficial trade which brought import and export activity to Korea. Also the manufacture of clothing material by women labor, although backward as it may be, can be seen as strong evidence that women labor continuously kept up the development of Korean industry. After the Koryo dynasty, trade in clothing material and other clothing items continued with other nations.

In conclusion we must not think that the Korean clothing industry started active

development from the Chosun dynasty. It is important that we realize this fact and looking at the continuous progress of the Korean clothing industry through historical documents, from early history to the Chosun era, we rightly evaluate history and be proud of this legacy and also reevaluate the wrong views held before.

I. 서론

우리나라의 織物衣類의 生産은 古代로부터 養蠶業이 發達하여 絹袍를 짚으며, 綿袍를 짚다. 三國時代의 中國과의 朝貢과 日本과의 交易이 文獻상이 기록으로 그 역사가 매우 오래된 것이라 하겠다. 고려시대에는 송과의 친밀한 외교관계로 문물을 많이 받아들였고, 특히 공민왕때 문익점이 목화씨를 가져온 것은 우리 직물 생산의 커다란 획이 그어진 것이다. 조선시대에는 明·淸과의 교역과 남쪽의 자바, 섬라 등 남방문화와도 교역이 있었다. 그후 개항과 더불어 급속한 구미 각국의 문물이 전래되면서 우리의 服飾과 衣服材料에는 많은 변화를 가져왔고, 衣服材料生産과 交易도 변화하였다. 手織機에 의한 가내 수공업의 단계에서 벗어나, 力織機에 의한 大量生産과 판매 다양한 衣服材料의 生産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더우기 오늘날은 국제시장의 개방화로 의류제품의 국가간 경쟁력이 강화되고 있어 어느시기보다도 자국의 이익을 위한 산업의 發展에 주력하고 있다. 이런 시점에서는 우리는 우리의 역사속에서 면면히 이어져온 服飾과 衣服材料生産의 發展過程을 살펴보고 이해하므로써 服飾史적 차원에서 衣類品 生産과 發

展을 위한 지혜를 역사의 發展 過程을 통해 알아보아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므로써 본 研究에서는 그동안 미흡했던 服飾 및 衣服材料生産 發展過程에 대한 사적 고찰의 결과를 정리해 보고 그 자료를 제시하여 이 분야 研究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을 둔다.

II. 研究 方法 및 範圍

本 研究는 古代로 부터 朝鮮朝에 이르는 동안 服飾과 衣服材料의 生産과 交易의 發展過程을 文獻을 통하여 사적고찰한다. 본 研究에서는 각文獻의 사료를 중심으로 衣服材料의 生産과 外國과의 사신왕래시에 朝貢·하사 답례로 오고간 服飾과 이들 사신들의 공식 비공식으로 수행한 상인들에 의한 交易등을 포함한 衣服材料내용을 참고로하여 고찰하였다.

참고로한 사료는 <표 1>과 같다.

그리고 이외에 「增補東國輿地承覽」 「朝鮮女俗考」 「增補文獻備考」 「高麗圖經」 등 각종지리서와 건문록, 문물, 제도서 등을 주로 참고하였으며 「日本書記」와 「삼국염직사」 등은 아울러 고찰하였다.

<표 1> 참고사료의 개괄적 분석

史料名	年 代	著 者	內 容
後漢書 (120卷)	中國 남북조시대 宋나라시기	范 曄 司馬彪	· 中國後韓의 正史로서 後韓의 13帝 196년간의 史實을 記錄한것. · 紀10, 志30, 列傳80으로 구성 · 단 志30은 司馬彪가 지술 · 東夷傳에는 夫餘, 挹婁, 高句麗, 東沃沮, 濊, 韓 및 倭의 傳이 있다.
三國志 (65卷)	中國 晉나라初	著 作 郎陳壽	· 中國 魏, 吳 및 蜀의 史書 · 魏志30卷, 蜀志15卷, 吳志20卷 · 魏志 東夷傳에: 夫餘, 高句麗, 東沃沮, 挹婁, 濊, 馬韓, 辰韓, 弁韓, 倭人 등의 傳이 있다.

(표 1) 계속

史料名	年代	著者	內 容
三國史記 (51卷)	高麗仁宗	金富軾	· 司馬彪의 史記를 본 따 쓴 원존한 삼국, 新羅 통일기를 통한 유일 최고의 正史 高麗때의 간행본은 없�지고, 朝鮮朝대에 와서 1393-1394년(太祖2-3년)에 陳義貴, 金居斗가 改刊, 1592년(中宗 7年)에 李繼福이 다시 개간, 이후 목판 또는 활자로 수차 개간되었으며, 本記, 年表, 志類, 列傳의 순서로 편찬 · 1~12: 新羅本記 13~32卷: 高句麗 本記 23~28: 百濟本記 29~31卷: 年表 32~40: 志類 41~50卷: 列傳
高麗史 (139卷)	1451년 朝鮮朝 文宗1년에 完成	太祖때 鄭道傳 鄭總이 편찬했고, 太宗때 崔臣이 교정했으며 世宗때 鄭麟趾, 金宗瑞 등이 편찬.	· 高麗 34王 475년간의 正史 · 中國 司馬遷의 史記를 본따 世家(46卷), 志(39卷), 表(2卷), 列傳(50卷)의 4항목으로 나누어 紀傳體로 서술
朝鮮朝實錄 (1507卷)			· 朝鮮朝의 27 임금의 實錄
海東歷史 (原篇70卷) (續篇15卷)	朝鮮 正祖때	原篇은 韓致諭이 서술 續篇은 韓鎭書가 보충, 완성	· 단군으로부터 高麗까지의 歷史書 · 우리나라 여러 역사서에서 조목하고, 中國과 日本의 역사서 545종에서 한국에 관한 기사를 뽑아 편술한 것 · 제 1~16권: 世紀 제17권: 星曆志 제18~21권: 禮志 제22권: 藥志 제 23 권: 兵志 제 24권: 刑志 제 25 권: 食貨志 제26,27권: 物産志 제 28 권: 風俗志 제29권: 宮室志 제 30,31 권: 官氏志 제 32권: 釋志 제33~41권: 交聘志 제42~59권: 藝文志 제 60 권: 肅愼代考 제61~66권: 備禦考 제67~70권: 人物考 續篇 15권: 地理考

Ⅲ. 文獻에 나타난 服飾과 衣服材料 生産의 발전 과정

1. 고대

人類는 구석기 시대부터 털가죽이나 식물의 잎을 몸에 걸치고 생활한 실증적인 자료가 화석, 분묘 등의 부장품으로 출토되어 입증되므로써 衣服材料에 대한 역사는 오래 되었고, 또한 천연물로 시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제직을 통한 衣服材料의 生産이 시작된 것은 定한 지역에 정착하여 집단생활을

영위하기 시작한 定住가 시작된 신석기 시대(B.C. 10C경) 부터라 하겠다.

특히 우리나라는 고대로부터 대마와 저마의지리적 본포권역으로서 文獻상 국가 성립 이전부터 이를 衣服材料로 사용하였음이 나타나고 있고, 잠업에 대한 기록도 찾아볼 수가 있다.

즉, 「漢는 양잠을 할 줄 알았으며, 면포를 짰다. 또 漢는 麻布를 짰다」(李能和, 「朝鮮女俗考」, 第二十二章, 朝鮮女子勞力動作, 「漢如蠶桑作綿布, 漢有麻布」) 고 하였으며,

「변한과 진한에서는 幅 넓은 細布를 짰고, 진한은

양잠기술에 能하였다」(李能和, 上揭書, 「弁韓作廣幅細布, 辰韓曉桑蠶」)「海東歷史」, 第二十六, 布帛類, 「진한작·布, 弁辰作廣幅細布」)

「마한 사람들은 蠶蠶을 하고, 면포를 짜며, 진한에서는 縑布를 짰다」(李能和, 上揭書, 「馬韓人知田蠶作綿布, 辰韓作縑布」)「海東歷史」, 第二十六, 布帛類, 「馬韓人知田蠶作綿布」)는 기록이 朝鮮女俗考와 海東歷史에 나타나 있다.

또한 三國志·弁辰傳에도

「옷은 아주 깨끗하게 입었고, 머리를 길게 기르고幅이 넓은 고운 피륙을 짜냈다」(「三國志」, 三十 魏書 三十一烏丸鮮卑東夷傳 第三十 弁辰傳「衣服潔清長髮, 亦作廣幅細布」)라고 하였다.

따라서 文獻에 나타난 바를 보면 三國 以前부터 織布를 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당시 記錄 中 무명, 즉 綿布라는 記錄은 木棉이 아니고 풀솜을 뜻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즉,

「綿布는 綿인데 이것을 풀솜이고 布는 麻布를 말한다」(「海東歷史」, 第二十六, 布帛類, 「綿布蓋綿是邏綿而布則麻布也」)는 記錄에서 綿布는 木棉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또한 木棉은 高麗末에 文益漸이 목화씨를 元나라에서 들여온 後에 비로소 綿布가 衣服材料로 사용되었다는 高麗史 記錄도 이를 뒷받침해 준다.

三國時代 以前에는 衣服材料의 생산에 대한 기록만 있을 뿐 他國과의 交易에 대한 內容은 提示된 바가 없어 당시는 自給自足勸인 農耕生活 가운데 衣服材料를 생산하고 사용했던 水準에 그쳤을 것이라 생각된다.

2. 三國時代

천연섬유를 收穫하고 紡錘車를 利用하여 製織하며, 이에 따르는 織物을 생산하던 고대의 原始的 方式을 脫皮한 三國時代에 와서는 人爲的인 섬유생산으로 轉換하여 생산이 활발해지고, 훌륭한 各種 織物을 생산하게 되었으며, 中國과 日本과의 交易를 통한 衣服材料 및 衣類品 등의 교류가 이루어지면서 더욱

크게 발전하게 되었다.

이와같은 事實은 三國史記, 增補文獻備考, 朝鮮女俗考 등에 기록된 바를 보면 알 수 있으며(표2), 이로 미루어 볼 때, 三國時代에는 衣服材料의 생산이 활발해지고 唐나라나 倭나라 等과의 使臣 往來時 各種 品目이 오간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日本과의 교류中 418年 百濟의 8代 腆支王 14年 여름에 使臣을 倭國에 보내어 比丹 열필을 선사하였는데에서는 衣服材料가 交易品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 三國時代에 日本과의 衣帛 및 衣服材料의 傳來內容은 日本書記에도 기록되어 있다.

「甲子(17일)에 新羅가 阿浪 金項那와 沙浪 薩曇生을 보내어 朝貢하였다. 調의 물품은 金銀·鐵鼎 錦·絹·布·皮·馬·狗·騾·駱駝 等 10여종이었고, 그 외에 또 獻上品이 있었다」(成殷九譯註, 「日本書記」, 정음사, 1987, 卷第二十九, 天武天皇下 8年, 「甲子, 新羅 遣阿浪項那 沙浪薩曇生 朝貢也. 調物, 金銀鐵鼎, 錦絹布皮, 馬狗騾 駱駝之類, 十餘種 亦別獻物」)

그리고 百濟의 近肖古王이 五色의 綵絹(五色의 絹織物) 각 1匹, 角弓箭, 그에 添하여 鐵鋌(鐵材) 40枚를 爾波移에게 주었다(成殷九譯註, 前揭書, 卷九, 神功皇后46年, 「時百濟肖古王, 深之歡喜, 而厚遇焉. 仍以五色綵絹各一匹, 及角弓箭, 并鐵鋌册枚」)는 기록도 있다. 또한 百濟에서는 日本에 縫製技術者를 보내어 직물 발전에 크게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즉,

「14年 春二月에 百濟王이 縫衣工女를 보냈다. 眞毛津이라 일렀다. 이것이 지금의 來目衣縫의 시조이다. 이해에 弓月君이 百濟로부터 돌아왔다」(成殷九譯註, 前揭書, 卷十, 應神天皇14年, 「十四年春二月, 百濟王貢縫衣工女曰眞毛津是今來日衣縫之始祖也」)는 記錄에서 찾아볼 수 있다.

文獻에 나타난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三國時代에 中國으로 간 衣服材料 및 衣類品은 주로 朝霞錦, 四十升 白氈布, 三十升 紵衫服을 비롯하여 朝霞紬, 魚牙紬, 四十綜布 三十綜布 등으로 布, 錦, 紬 種類였다.

中國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온 品目은 綵綾羅, 紫衣,

錦, 綾綵 등과 王과 왕비, 왕태자, 재상들의 비단으로 만든 衣服이 主를 이루었다. 또한 倭나라에서는 비단을 보내왔고, 우리나라에서 日本으로는 錦袍와 彩帛을 보낸 것으로 要約될 수 있다. 그러나 中國에서 우리나라로 보내온 衣服材料나 衣類品이 우리나라에서 中國으로 보낸 것 보다는 그 量과 質수가 많은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우리나라가 中國보다는 상대적으로 衣服材料나 衣類品의 生産이 원활하지 못했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추측된다. 그리고 文獻에서 살펴본 내용은 사신들의 왕래시 오고간 물품중에 의복과 衣服材料 등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嚴格한 意味에서 交易이라기 보다는 進貢을 맺고 왕래하는 가운데 주고 받은 贈物의 일종이었으므로 外國과의 오늘날과 같은 무역이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나 間接적인 무역의 기초를 이루었다고 볼 수도 있다.

우리나라에서 製織된 麻나 紵織物 등은 製織기술 뿐만 아니라 직물의 제반 물리적 특성도 中國의 것보다 우수했으며, 또한 麻, 紵의 製織기술이 B.C 2~3세기경 日本에 전파되었다.(閔吉子, 1986, 107-128)는 기록을 볼 때, 우리의 衣服材料 生産 수준은 높았다고 하겠다.

당시의 衣服材料와 服飾의 交易은 비록 조공무역의 형태를 취하고 있었으나 關을 중심으로 한 外國과의 輸出入을 통해 貢物로서 이와 같은 물품이 교류되면서 직접·간접적으로 우리나라의 衣服材料와 衣類品의 生産과 발달을 유도했을 것으로 보인다.

3. 高麗時代

高麗時代는 新羅말기의 分裂과 混亂 가운데 왕건이 우리의 옛땅을 收復하기 위하여 세운 새 왕조이다.

高麗는 내부적으로는 融和 政策을 실시하여 新羅의 귀족들을 懷柔하였고 외부로는 옛 高句麗의 강토를 회복하려는 북방 정책으로 거란족, 여진족, 몽고족 등 북방 민족들과 끊임없는 무력 또는 정신적인 싸움으로 點綴되어 왔다. 그리고 中國을 통일하게 된 송과는 光宗(23年)때 徐熙를 보내 親交를 맺어(「高

麗史」, 世家 光宗「遣內議侍郎 徐熙等如宋」) 親密한 외교 關係를 이루었으며, 高麗는 이로써 송의 문물을 다량 輸入하였다. 이는 高麗의 귀족 富豪의 생활에 奢侈心을 더하는 弊端도 되었으나 高麗의 학문과 예술, 기타 文化의 발달에 큰 도움을 주었다고 하겠다.

「中國에 오는 高麗의 使臣들에게 의복을 내리니, 高麗의 의복이 점점 中國風을 닮아가 그 衣類를 모두들 좋아하여…」(「高麗圖經」, 冠服, 「歲通信使屢賜襲衣, 則漸瀆華風, 被服體休…」)

라고 한 기록과,

「光宗 7年에 百官의 의복은 中國의 제도를 따르라고 명령하였다.」(「高麗史」, 世家 二, 「光宗七年仍令百官衣冠從華制」)

라는 기록을 보면 당시에 中國의 문물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高麗에서는 의복의 색상이나 紋樣에 있어서 中國의 의복 제도를 進貢의 표시로 따르도록 하였으나 후에는 이러한 의복제도가 생활에 익숙해지고 좋게 평가되어 하나의 유행처럼 염색 가공 기술적 견지에서 추종하려 했던 것으로 추측된다.

그리고 高麗에서는 織物이 의복을 만들기 위한 것뿐만 아니라 貨幣로도 使用되었다는 사실을 다음과 같은 기록을 보면 알 수 있다.

즉,

「각기 자기가 所有하고 있는 물건을 가지고 必要한 것을 살 때는 貨幣法이 없고, 紵布와 銀瓶으로 물건을 교환하는 基準으로 삼았다.」(「高麗圖經」, 卷三 城邑貿易條, 「各以其所有用以交易無泉貨之法惟紵布銀瓶以準其直」)

고 한 점과 高麗史에,

「忠惠王 元年 四月에 비로소 새로 작은 銀瓶을 만들어 사용하니 그 銀瓶의 가치가 紵布十五匹 같았다.」(「高麗史」, 志, 卷第三十三 食貨二, 「忠惠王 元年 四月 始用新小銀瓶---當五紵布十五匹禁用舊瓶」)

라고 한 바를 보면 알 수 있다.

「恭愍王 五年 九月에 政府에서 財政官吏들에게 명령하여 화폐구조에 대해서 협의할 것을 말하였다. 그때 여러 官관들이 의견을 말하기를, 우리나라는 옛

부터 碎銀과 權銀瓶의 무게로 화폐를 하고 五升布로서 화폐를 사용한 것이 오랫동안 계속되었다고 말하였다. 「(高麗史, 志, 卷第三十三 食貨二, 「恭愍王 五年 九月 都堂令百司議幣諫官獻議日本國近古以碎銀權銀瓶之重爲幣而以五升布翼以行之及其久也)」

는 내용을 보면, 碎銀 權銀瓶 布가 화폐의 기능을 하였으며 그 중에서도 布의 가치가 富의 尺度로서 銀보다 상위였음을 알 수 있다.

高麗前期는 주로 宋을 비롯한 거란, 여진과의 해외무역이 이루어졌으나, 高麗後期에는 주로 蒙古와의 交易만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으며, 특히 衣服材料와 衣類品の 교환을 통하여 진개되었다고 할 수 있다.

高麗前期(太祖(918年~943年)~17代 仁宗(1122年~1146年))에는 특히 顯宗과 文宗때 東女眞, 西女眞, 거란, 宋과의 活潑한 往來를 통하여 우리나라의 각종 衣服材料와 衣類品이 교류되었음을 알 수 있다. 宋나라는 금나라의 침입을 경계하여 高麗의 부력을 필요로 하였고, 高麗는 宋나라의 文化輸入을 目的으로 하여 서로 수교관계를 맺고, 매우 가깝게 交易를 이루었다. 授受된 國信物과 商人들의 交易品을 통하여 衣類品을 당시의 수출입품으로 다루었다는 짐을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해외에 보냈던 품목은 의복을 비롯해 여러가지 빛갈의 곱고 얇은 緋緞과 苧, 麻布와 같은 포복, 종이 자개박은 그릇 등이었고, 女眞이나 宋에서는 주로 여러가지 화려한 비단과, 비단으로 만든 의복, 금박 磁器를 비롯한, 상아 앵무 등 남양의 산물이 商人들의 중계 交易品으로 들어왔다(김성철, 1951, 237-238). 이와 같이 高麗에 온 직물은 비단이었는데, 이는 우리의 비단질이 떨어지고 색상도 좋지 않았다고보다는 中國에서 다량 생산되던 비단을 초과생산된 양은 빨리 처분하기 위한 방법으로 오늘날 수입개방압력과 같은 유형에 근거한 의도에서 보내왔다는 것도 짐작해 볼 수 있으며, 우리나라보다는 추운 지역이 많은 中國에서는 신체의 보온을 위한 絹織物의 생산이 상대적으로 많고, 우수했으므로 보내졌던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이러한 高麗 前期의 交易는 주로 그 나라를 대표

하는 사신들의 왕래시에 이루어졌던 것으로 文獻에 기록되어 있어, 官의 주도하에 이루어진 公貿易의 형태로 여겨진다. 그러나 사신을 따라간 일부 상인들의 密貿易에 의한 衣類品 교환도 있었을 것으로 보이나 본 연구의 文獻 고찰에서는 통계나 수치로 발견할 수 없었다.

高麗 後期(18代 毅宗(1146年~1170年)~34代 恭讓王(1389年~1392年))에는 蒙古의 侵入으로 무리한 朝貢을 相對적으로 미발달된 蒙古의 強要를 받으며, 交易이 이루어진 때이다. 따라서 高麗는 蒙古風을 크게 따르게 되기도 하였다. 그리고 高麗 말에는 暎나라와의 의복 교류가 이루어졌는데, 특히 관복이나 大臣들의 의복, 왕의 평상복 등이었다.

高麗 後期の 衣服材料 생산에서 특이한 것은 恭愍王때 文益漸이 목화씨를 가져온 것이다.

「文益漸이 元나라에서 돌아올 때 목화씨를 가지고 와서 親戚인 鄭天益에게 이를 심게 하니 처음에는 그 栽培 技術을 確實히 알지 못하여 모두 말라 죽고, 그 중 한줄기만 살아서 남았다. 그런데 그것이 퍼져서 3년이 되니 全國에 널리 퍼지게 되었다. 또 그후에 씨를 빼는 取子車와 纈絲車를 모두 鄭天益이 考案했다」(「高麗史, 卷 百一十一 列傳 第二十四 「還得木棉種歸屬其舅鄭天益 種之初不曉培養之術幾稿止一莖在此三年遂大蕃衍其取子車纈絲車皆天益創之」)

는 기록을 볼 때, 高麗 後期부터는 綿布를 생산했고, 이와 함께 麻布, 苧布, 絹織物 등을 생산해 내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는 朝鮮女俗考에는,

「恭愍王 4年 乙未, 元나라에 문저포를 바치는 것을 중지시켰다. 恭讓王때 방사량이 생소하기를 우리나라에는 토질이 細苧·麻布에 합당하므로 오랫동안 상하가 이를 풍족히 사용하였는데 지금에 있어서는 귀한 사람과 친한 사람, 말할 것 없이 외국의 물건을 좋아해서 절제가 없으므로, 원컨대 지금부터는 사서공상, 친한 사람에 이르기까지 일체 비단옷을 입는 것과 金銀 珠玉으로 장식하는 것을 금기하라 하였다. 보통 가정의 자손들의 집이 가난하여 비단으로 만든 좋은 금침을 마련하지 못하여 세월이 지나 길혼시기를 놓치고, 부모가 돌아가서 그 부이 일가

친척에게 의지하거나 혹은 奴婢가 되어 이로 인하여 예를 모르고, 人倫을 폐하게 되니 지금부터는 혼수 용구에는 전적으로 綿布를 쓰고, 일체 외국물건을 금하여야 한다.」(李能和, 前揭書, 第二十二章, 朝鮮女子勞力働作, 「恭愍王四年乙未元罷貢紋苧布恭讓王時房士良疏曰我朝只用土宜細苧麻布而能多歷年所上下饒足今也無貴無賤爭貿異土之物奢侈無節願自今土庶工商賤隸一禁紗羅綾緞之服金銀珠玉之飾人家子孫或家貧無錢擲衾之未辯淹過歲月婚姻失時甚至父母亡而或托族屬依奴婢因此失禮幾敗人倫願自今婚姻之家專門綿布一禁異土之物)」

라는 기록이 있어 高麗 後期에는 蒙古의 朝貢 強要에 의해 衣類品の 교류가 일방적으로 이루어지기도 하였으며, 官을 中心으로만 交易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보통가정에 이르기까지 사적인 交易이 이루어져 이를 통해 얻은 외국물건을 선호하게 되고 급기야는 禮를 모르고 人類을 잃게하는 위험에 이르렀다는 경계의 내용으로 보아 貢貿易뿐만 아니라 密貿易도 衣類品 수출입에 한몫을 했으며, 高麗 末에 들어온 면포의 생산을 장려하고 사용을 하였던 바도 알 수 있다.

4. 朝鮮시대

朝鮮朝는 중앙집권적 관료주의 국가이며 班常의 구별이 강하게 작용하였으므로 商工業에 종사하는 이들에 대해서는 천시하는 경향이 있어 衣服材料 生産업 역시 큰 발달을 보기는 어려웠고, 明·淸과의 朝貢貿易 形態로 衣類品の 수출입이 高麗에 이어 계속된 시기이다.

東國文獻備考 財用考에는,

「우리나라 백성은 가난하고 집에는 남아도는 재산이 없다. 밭을 갈고, 織布하여 衣食을 얻는다. 工商을 業으로 하는 者는 있다 해도 土木皮革之器와 麻絲縠之用을 서로 無遷하는데 불과하며, 겨우 自給할 수 있었다.」(「東國文獻備考」, 財用考六, 孝宗五年「李敬輿劄」을 유희경, 「韓國服飾史研究」, 梨大出版部, 1980, p.597에서 再引用.)

라고 하여, 衣服材料의 생산은 農家副業이었으며,

겨우 自給自足의 水準에 머물렀음을 나타낸다.

그리고 朝鮮朝에서는 朱子의 유교사상의 영향으로 여성은 주로 縫裁, 育兒, 家事, 婦德을 쌓는 일이 生活領域으로 局限되어 특히 衣生活와 관련된 바느질, 길쌈, 양잠 등은 여성의 대표적인 활동이었다. 이는 朝鮮朝 여성 교육 내용에서 朝鮮 전후기를 막론하고 강조되어 왔음을 여러 文獻을 통해 알 수 있다.

昭惠王后的 「內訓」(1475年, 成宗 6年)에는

「여자는 열살이거든 밖에 나가지 아니하며… 삼과 모시를 잡으며, 실과 고치를 만지며 배짜며 大회(띠)를 짜 아낙네의 일을 배워 옷을 지어야 한다.」(昭惠王后, 「內訓」, 卷第三, 第五 母儀章, 「十年不出…執麻治麻 織 組紉學女事以共衣服」)

고 하였으며, 宋時烈(1607年~1689年, 仁祖-孝宗)의 「戒女書」에

「婦인이 바느질, 길쌈, 음식 만들기를 모르면 이것은 마치 남자가 詩書六藝를 모르는 것과 같다.」(李德懋, 「土小節」, 婦儀篇, 服食, 「婦人而不識縫織 是猶丈夫而不知詩書六藝」)

고 하여 집안에서 여성의 노력으로 衣服材料 및 衣類品 生産이 이루어졌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여성들의 衣服材料 生産은 자급자족으로 충족하였고, 田租로서 納付되는 布貨以外에 戶布, 神布, 軍布, 保布 등으로 徵收되었으며 약간의 物물교환이 가능했을 정도였다.

朝鮮朝의 衣服材料 生産에 대한 내용은 「新增東國輿地勝覽」을 보면 알 수 있다. <표2>는 그에 나타난 朝鮮朝 초기의 섬유 생산지이다.

經國大典 戶典 蠶室條에는

「各道에 뽕나무를 심을 만한 곳을 선정하여 그곳에 蠶室을 설치하고, 누에를 키우고, 각도, 각 고을에서는 養蠶을 하여 고치를 거두어 나라에 바치도록 하였다.」(「經國大典」 戶典 蠶室條, 「諸道宜桑處 置都會蠶室 成籍 藏於本曹本道本邑養蠶 取絲 上納」)

라는 기록이 있어 길쌈을 중요시 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增補文獻備考에는

「文元 元年 王이 畝를 내리기를 부인들이 누에를 키워 길쌈하는 것이 근본이니, 中殿, 世子嬪은 養蠶을 익혀서 女功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바란다고 하였

〈표 2〉 新增東國輿地勝覽에 나타난 朝鮮朝 초기의 섬유의 생산지

織 紐	道	生産地 (出處)		앞 수 : 卷數		
				뒷 수 : 面數		
絲	京畿	安城(十二) 長湍(十二七) 驪州(七四)	龍仁(十四), 麻田(十三十五),	楊州(十一三) 連川(十三十八)		
	忠清	淸風(四十七)				
	黃海	黃州(四十三三) 安岳(四十二二) 文化(四十二二十六) 長淵(四十三五十)	平山(四十三十五) 遂安(四十二八) 海州(四十五三)	鳳山(四十三三) 谷山(四十二一) 靈津(四十五三十四)		
	咸鏡	咸興(四十八八) 高原(四十八二十八) 端川(四十九二十五) 吉城(五十一)	永興(四十八十九) 安邊(四十九五) 利原(四十九二十九) 昌城(五十三三十六)	定平(四十八二十五) 北青(四十九二十) 洪原(四十九三十六) 朔州(五十三三十五)		
	平安	宣川(五十三三十五) 博川(五十四十二) 德川(五十四二十二) 順川(五十五二) 江界(五十五十八)	郭山(五十三三十六) 泰川(五十四十五) 侁川(五十四二十四) 孟山(五十五十)	熙川(五十三十一) 成川(五十四十八) 慈山(五十四二十六) 江東(五十五十二)		
	麻	京畿	安城(十二) 長湍(十二七)	龍仁(十四) 麻田(十三十五)	楊州(十一三) 連川(十三十八)	
		黃海	鳳山(四十三三十二) 谷山(四十二一) 靈津(四十五三十四)	安岳(四十二二) 文化(四十二二十六) 康翎(四十三四十四)	遂安(四十二八) 海州(四十五三) 長淵(四十三五十)	
		咸鏡	咸興(四十八八) 高原(四十八二十八) 端川(四十九二十五) 吉城(五十一) 朔州(五十三二十九)	永興(四十八十九) 安邊(四十九五) 利原(四十九二十九) 慶源(五十二十一十六) 龜城(五十三三十二)	定平(四十八二十五) 北青(四十九二十) 洪原(四十九三十六) 昌城(五十三二十六)	
		平安	宣川(五十三三十五) 博川(五十四十二) 德川(五十四二十二) 順川(五十五二) 江東(五十五二十)	郭山(五十三三十六) 泰川(五十四十五) 侁川(五十四二十四) 祥原(五十五四) 江界(五十五十八)	熙川(五十三十一) 成川(五十四十八) 慈山(五十四二十) 孟山(五十五十)	
		苧	忠清	林川(삼칠十八) 夫餘(十八三十一) 瑞山(十九十一)	韓山(삼칠二十二) 川(十九八)	定山(十八四) 青陽(十九三十四)
			慶尙	蔚山(二十二三)		
			全羅	咸平(三十六八)		
江原			江陵(四十四七)	三步(四十四二十七)		

다.」(『增補文獻備考』, 卷一四十七, 田賦考 務農條, 「文宗元年 禮有夫人蠶織之文本 欲中宮與世子嬪 親見女功」)

라고 하여 民間에서 뿐만 아니라 宮中에서까지도 양잠을 獎勵하였다. 그리고 英祖 때에는 王이 耕織圖를 만들어 농업과 養蠶에 힘쓰도록 한 바도 있다.

「英祖 46년에 王이 耕織圖를 만들어 일반 民間에 게 반포하여, 이를 보고 농사일을 힘쓰도록 하였다. 農業과 양잠은 나라의 근본이니 이를 잘 익히도록 하라고 전국 방방곡곡에 알렸다. 나라의 근본은 백성이요, 백성의 근본은 衣·食·住를 풍족히 하는 것이니, 이것이 바로 하늘이다 하여 받가는 방법 23가지, 피륙짜는 방법 23가지, 그 외에 비료를 주는 방법, 밭의 김을 매는 방법… 등을 그려서 알리고, 끝으로 말하기를 농부가 집에서 양잠을 하기란 참으로 힘든 것이나 양잠으로 말미암아 옷을 따듯이 입으므로써 모든 일을 하는데 편리하지 않겠는가. 그러므로 농부들은 그 아내가 길쌈하는 것을 깊이 찬양하고 이를 힘껏 도우라고 하였다.」(『增補文獻備考』卷一四十七, 田賦考 務農條, 「農勤桑海東三百六十州 元元有食有衣 御製題耕織圖曰 夫國以民爲本 民以食爲天 可不重歎次 此耕織圖出於 京而耕類廿三織類廿三 耕則曰浸種 曰耕曰…者成衣之象也首尾四十六圖農夫之艱辛蠶婦之苦楚 若在眼前 噫當其食而念一粒粟之出於農夫之辛苦 當其衣而念 一尺帛之出於蠶婦之艱楚 推是心足以節用推是意 足以省費此」)

그리고 麻布의 생산도 활발히 이루어져, 「新增東國輿地勝覽」은 京畿·黃海·咸鏡·平安道 등지에서 생산되었다는 기록이 있다. 그런데 麻布의 대표적인 正五升布의 생산지는 세종실록지리지(표 3)에 보면 京畿·忠淸 地域으로 나타나 있고, 黃海道와 平安道에서도 麻布가 생산되었다고 지적되어 있어, 두 文獻에서 다소의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京畿를 비롯한 黃海, 平安道 地域에서의 麻布生産은 공통되므로 이 일대를 중심으로 麻布가 생산되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그리고 朝鮮女俗考에는

「朝鮮에서 麻布가 나온 것은 咸鏡道 六鎭麻布가 가장 훌륭했으니 이름을 北布라 했다.」(李能和, 「朝鮮女俗考」, 第二十二章 朝鮮女子勞力働作, 「朝鮮出麻布 而咸鏡道六鎭麻布爲最」)는 기록도 있다.

苧布는 忠淸·慶尙·全羅·江原道 일대에서 생산되었다. (『新增東國輿地勝覽』, 十七~四十四)고 기록되어 있으며, 京畿·忠淸에서는 특히 白苧布와 慶尙·全羅에서는 苧布가 생산되었다. (『歷代 朝鮮朝實錄』 東京, 學習院東洋文化研究所, 昭和三十三年, pp. 1-354.)고 나타나 있다.

또한

「朝鮮의 苧布는 한산에서 나오는 것이 가장 좋아서 이름을 한산모시라 하였다.」(李能和, 「朝鮮女俗考」 「朝鮮出苧布 韓山最良」)라는 기록에서도 苧布 生産地를 알 수 있다.

〈표 3〉 세종실록지리지에 나타난 각도별 섬유 생산

道	面 數	內 容
京 畿	9	白苧布, 正五升布
忠 淸	48	白苧布, 紬, 正五升布, 綿子
慶 尙	94	綿紬, 苧布, 綿布, 正布, 雪綿子
全 羅	167	苧布
黃 海	224	麻布
江 原	250	正布
平 安	278	麻布

자료 : 『歷史 朝鮮朝實錄』 東京, 學習院東洋文化研究所, 昭和三十三年 ; 世宗實錄地理志 卷百四十八~卷百五十五, pp.1-354.

〈표 4〉 우리나라 服飾과 衣服材料 생산의 시대별 특성

구 대	衣類品 생산과 交易의 특성
고 대	① 자급자족적인 농경생활 가운데 衣服材料를 생산하고 사용했던 수준으로 추측됨. ② 양잠을 하고 麻布를 짰으며, 細布와 布를 짰다. ③ 타국과의 衣服材料 交易내용을 찾아볼 수 없었다.
삼 국 시 대	① 衣服材料 생산이 활발해지고 당나라, 진나라 등과 衣服材料 및 衣類品の 交易이 이루어졌다. ② 日本과의 交易도 이루어 졌고, 주로 錦袍와 彩帛 등을 보냈다. ③ 中國으로의 衣服材料 수출품은 朝霞紬, 魚牙細, 四十 棕布, 三十棕布 등이다. ④ 우리나라의 衣服材料 생산기술이 日本으로 전파 되었다.
고 려 시 대	① 高麗前期에는 거란, 여진, 송과의 交易를 통해, 비단의복이나 부속품 등을 수입하고 지포와 麻布 종류를 수출하였다. ② 高麗後期는 몽고의 무리한 朝貢의 강요로 交易이 이루어졌고, 이에 따라 의복도 몽고풍의 영향을 받게 되었다. ③ 文益漸이 원나라에서 복화씨를 가져와 면포 생산의 계기를 마련하였다. ④ 관을 통한 공무역 뿐만 아니라 사적인 밀무역을 통해서도 衣類品の 수출입 되었다.
조 선 시 대	① 衣服材料의 생산은 여성의 노동력에 의해 가내공업 수준으로 후진성을 띠었다. ② 명나라, 청나라, 日本과의 衣服材料 및 衣類品の 交易이 이루어졌다. ③ 공무역 뿐만 아니라 중강후시를 통한 밀무역도 이루어 졌다.

朝鮮朝의 이와 같은 衣服材料 生産을 바탕으로 中國과 衣服材料 및 服飾의 交換 內容을 文獻을 토대로 하여 그 특성을 다음과 같이 정리 할 수 있다.

朝鮮朝가 中國의 명과 淸과 이룬 交易은 주로 物物交換으로 이루어졌다. 이외에 使臣과 일행이 혹은 沿路에서, 北京에서 貿易行爲를 하였으며 나중엔 義州의 貿易 商人들이 이 使臣을 따라 中國에 드나들었다. 이를 後市貿易이라고 하고 輸出品은 주로 紅苧布, 黃苧布, 麻布, 紬를 보냈고 輸出品은 한결같이 비단이였다. 이 高級 絹織物은 주로 王室과 高官들의 수요를 충족시켰다고 할 수 있다.

朝鮮朝와 日本과의 衣類品 輸出入 交易 內容을 정리해 보면, 日本에서는 주로 布帛類, 生糸, 海黃, 紬·綸子 등이 輸入되었고, 우리나라에서는 麻布, 苧布, 綿布 등이 수출되었다. 그런데 朝鮮이 日本과의 交易을 한 까닭은 倭寇의 피해를 막기위한 懷柔策의 一環으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癸亥條約(世宗 25年, 1443年) 成立 以後 釜山浦와 薺浦, 藍浦의 三浦口를 열어 倭人인들이 교통 거류

交易의 처소로 삼을 수 있도록 허가하였고, 倭人들과의 무역은 주로 倭館에서 이루어졌지만, 이밖에도 서울의 東平館과 日本使臣이 부산에서 서울로 올라가는 길목의 특정 장소에서 이루어졌다. 동평관에서 交易은 원칙적으로 日本 사신이 朝鮮 국왕에게 진상품을 바치고 이에 대하여 朝鮮 국왕이 하사품을 내리는 朝貢무역이 있다.(강만길, 1975, 181.)

따라서 朝鮮朝의 대 日本 衣類品 무역은 倭寇의 侵略을 牽制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朝貢 무역이였으며, 주로 麻布, 苧布, 綿紬, 木棉, 大襦子, 大段子 등을 하사품으로 보냈다.

그리고 高宗 1882年 以後에는 奧地第(Austria)에서 여러가지 의복 재료를 비롯한 수출품이 국내로 들어왔다는 기록이 있다.

주, 「增補文獻備考」에는

「제3에 속하는 화물, 음료수, 모직물, 인도 목재 여러가지 칠계, 범포, 석회석·면포갑종면사, 견사, 그 외에 綿織物과 絹織物 등등의 수입품이 있었다.」(「增補文獻備考」, 卷164, 韓輿稅則, 「第三等值百抽七五貨

物氣水類氈被類印度 蘇木鈕絨鉤圈類燭帆布毛 地氈 掛絨類灰沙木炭化學藥料各種…布 各種木棉蠶絲交織 各種…」고 나타나 있다. 따라서 朝鮮朝말 개항이후 서구와의 무역을 통해 의류품과 衣服材料가 오간 것을 알 수 있다.

IV. 結論

우리나라의 古文獻의 고찰을 토대로 하여 볼 때, 그 역사가 매우 깊다. 고대에는 자급자족적인 농경 생활 가운데 衣服材料를 생산하고 사용했던 것으로 나타나며, 三國時代 부터는 唐나라, 晋나라, 日本 등과의 활발한 交易이 이루어졌고, 우리의 衣服材料 生産기술을 日本으로 전파시키었다.

한편, 衣服材料의 生産과 交易의 발전을 高麗의 면포 生産과 공무역, 사무역을 통한 服飾의 수출입을 통하여 더 활발하여 진 것으로 보며, 또한 길쌈을 익혀 평생을 베풀과 씨름해야 했던 朝鮮朝 女人의 여성노동력에 의한 衣服材料의 生産은, 산업발전을 계속적으로 이루게 한 것으로 평가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에서는 古代로부터 朝鮮朝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發展되어온 그 과정이 各史料와 古文獻을 통한 자료로서 명확하게 계속적으로 제시되어 있어 被服材料를 生産의 역사가 길며 계속 끊임없이 發展되어 오늘의 生産樣式에 이어진 事實이 確認된다.

【참고문헌】

- 1) 강만길, 「한국상업의 역사」, 교양국사총서 13, 1975.
- 2) 「後漢書」
- 3) 「三國志」
- 4) 「三國史記」
- 5) 「高麗史」
- 6) 「朝鮮朝 實錄」
- 7) 「海東歷史」
- 8) 이승화, 「朝鮮女俗考」
- 9) 「日本書記」
- 10) 민길자, “직물의 종류에 관한 연구”, 「교육총론」, 국민서, 1986, vol.6, No.1.
- 11) 「高麗圖經」
- 12) 김성철, 「국사통론」, 문림사, 1951.
- 13) 「東國文獻備考」
- 14) 소혜왕후, 「內訓」, 전양완 역주, 학원사, 1988.
- 15) 송시열, 「계녀서」
- 16) 이덕숙, 「사소절」
- 17) 「經國大典」
- 18) 「增補文獻備考」
- 19) 「新東國輿地勝覽」
- 20) 「世宗實錄地理志」
- 21) 吳淑生, 田自·「中國染織史」상해, 인민출판사, 1986.
- 22) 손진태, 「국사대요」, 을유문화사.